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리아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 성도의 빛 8

1984

## 차 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애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톤  
브루스 알 맥쿠키  
엘 톰 메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오크스

###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새  
로렌 시던  
랙스 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
질 의 응답 .....		7
봉사가 다르게 만든다 .....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담.....	11
범주를 초월하여 바라봄 .....	켄 언더우드 .....	16
“우리 가정 복음 교사의 전화...” .....	로버트 케이 맥킨토쉬 .....	20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	22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	바이얼릿 엠 테이트.....	27
15세, 나의 축복의 해 .....	브렌다 마티네즈 .....	31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우리의 편 의 대로가 아니라 .....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	34
나의 개종을 도운 나의 일지 .....	스텔라 마리 맥카널리 .....	39
심심풀이 .....	로버타 엘 페어롤 .....	42
제도와 강 .....	델마 제이 해리슨 .....	43
심심풀이 .....	타미 런트 .....	47
좋은 모범이 되자 .....	패트 그래햄.....	48
지역 성도의 간증 .....	김 수진 자매(상계 1와드) .....	50
지역 소식 .....		51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8호, 제20권 제8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와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82KO PRINTED IN KOREA 8/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는 우리 모두가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외롭고 황량한 곳이 되고야 마는 것에 대하여……즉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폭풍 치는 날, 하늘에 아아치를 수놓는 아름다움이 사랑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사랑은 어린이들이 흐느껴 울면서 바라는 안정이며 젊은이의 소망이며 결혼을 묶어 주는 접착제이며 가정에서 마찰을 방지해 주는 윤활제입니다. 사랑은 노년의 화평이며 사망을 통해서도 빛나는 희망의 햇빛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교회 회원과 이웃과의 친교에서 사랑을 만끽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하나

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말에 뜻을 같이합니다. (필 벅, 보물 상자, 찰즈 엘 윌리스 편, 뉴욕, 하퍼 앤 로우 출판사, 1965년, 165페이지)

우리는 젊었을 때 종종 사랑이 강요되거나 편리에 의하여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랑에 대하여 불완전한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범하기 쉬운 큰 과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질의 집합체라는 생각으로 마치 장부 계원이 차변 대변을 기재하듯이 스스로의 좋은 자질과 나쁜 자질을 합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계산의 결과가 유리할 때 결혼을 결정할 것이다. 세상은 결혼을 훌륭한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한 불행한 남편로 가득 차 있다.”

“어쨌든 사랑은 투자가 아니다. 사랑은 모험이다. 결혼이 훌륭한 투자로서 지리한 안일에 빠질 때 만족하지 못한 반려자는 곧 다른 곳으로 돌아선다”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 반려자에게서 발견하는 것이(다른 아무도 볼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그 여자(혹은 그 남자)의 어디를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있다.”(시드니 제이 해리스, 매저렛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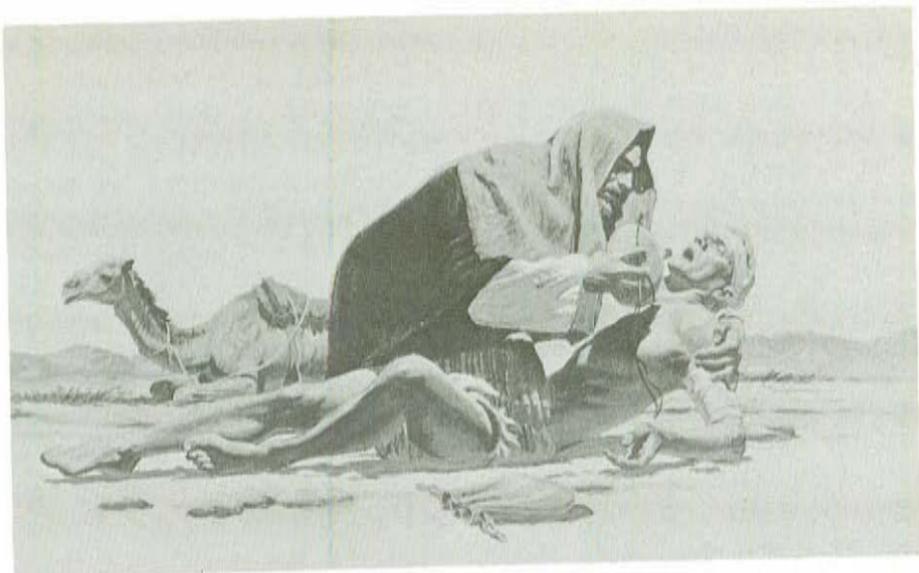
나는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에 알았던 두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 마을에서 온 소년으로서 외모도 평범하고 돈도 없었고 별로 장래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농장 일을 하면서 자랐으며 그에게 매력적인 자질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일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런 종이 봉지에 샌드위치를 싸서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하여 학교 마룻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촌스럽게 보이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도시 소녀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렇게 크게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품위와 인품을 지녔으며 그녀의 훌륭한 품행과 복장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멋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는 훨씬 더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속닥거렸고 그런가 하면 다른 처녀들이 그 남자의 관심을 끌었으리라는 뜬소문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은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함께 웃고 춤추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먹고 살 돈이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렵게 직업 학교 과정을 계속했으며 그의 반에서 잘 해냈습니다. 그녀는 돈을 모으고 일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항상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정말로 어려워질 때는 조용하게 “우리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신뢰심에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녀가 생겼으며 그들은 함께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양육했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성실에서 나오는 안정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성장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자랑 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그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칙칙한 비행기 내부의 통로를 지나가다가 흰 머리의 여성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깨어 있었으며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도 잠에서 깨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었으며 남편이 상당한 학자들의 단체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아주 조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부인은 남편에게 주어진 명예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의 남편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두었더라



우리가 바쁘고 이기적인 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주님의 이 훈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먼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년 전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디가 마음에 들었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비행기의 내 자리에 돌아와 앉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을 시골에서 온 농촌 소년과 코에 주근깨가 있는 미소 짓는 소녀로밖에는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미래의 사랑과 성실과 화평과 신앙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어떤 거룩한 것이 이들에게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 시절에 그 사랑이 꽃피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미덕과 신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노력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는 것에 관해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숙한 시기에 도달하여 함께 화평과 조용한 만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이외에도 그들은 오래 전에 신전에서 맺은 신권 성약과 받은 약속을 통하여 영원히 기쁘게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위대하고도 꼭 필요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5-40)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감동적인 비유나(눅 10 : 30-36 참조) 심판의 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 : 34-40)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이 훈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학교 교사로 시골로 간 어떤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반에는 이미 낙제를 한 일이 있고 다시 낙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가정은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큰 도시로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시력이 나빠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된 젊은 교사는 자비를 털어서 그 학생을 도시로 데려가 눈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문제가 안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곧 그 학생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글자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학교 교사의 봉급은 적었지만 그 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돈으로 실패하고 있는 한 학생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였습니다. 귀한 선교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서 자신을 바치는 경험과 또한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있는 경험을 알게 된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에 활동적으로 참여한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자기 시간과 재산을 바치고 너무나 사랑하고 위해서 희생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또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거의 끝이 없는 헌신적인 부모와 결혼 반려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지워 주고 악감정에 의하여 깨어진 관계를 고쳐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가장 훌륭하게 가르친 분은 사랑에 관한 완전한 모범이며 신생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지

상에 오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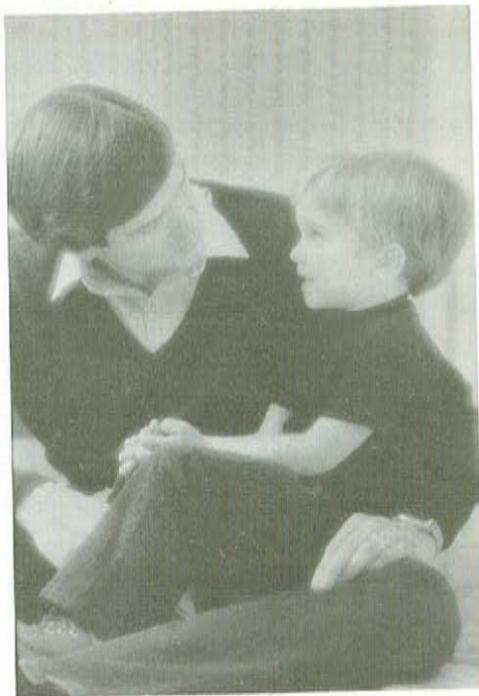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실 때 사실은 당신의 구속의 희생에서 그 절정을 이룬 희생과 사랑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그분은 그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세상이 개선되려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공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렇게 선언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교성 88:67)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그를 섬기면 우리에게서 죄의 어두움과 이기심의 어두움과 교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의 구세



주,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좀더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손길을 뻗치는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좀더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손길을 뻗치는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생활 방식으로써 우리에게 추천할 만한 것이 달리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잘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린도전서 13:1-2,8)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4)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펼칠 때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이 훌륭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력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깊은 곳에 사랑의 원리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위대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의 권세를 얻게 됨에 따라 요한이 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일 4:16)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랑은 어린이들의 안정이며 결혼을 묶어 주는 접착제이며 가정에서 마찰을 방지해 주는 윤활유입니다. 사랑은 노년의 화평이며 사망을 통하여서도 빛나는 희망의 햇빛입니다.

2.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지워주고 악감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 이상의 목표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할 때

세상이 개선되려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공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그를 섬기면 우리에게서 죄의 어두움과 이기심의 어두움과 교만의 어두움이 나가지 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올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좀더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에 관한 완전한 모범이며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지상에 오신 것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사랑의 중요성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향해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잘될까? 사랑에 관하여 정권회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경전에서 반석이란 말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 로버트 제이 매튜스, 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교육학장.

경험이 많은 건축가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축물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고대의 기초의 기본 요소를 일컫는 반석이나 돌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힘, 견고성, 내구성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비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생활의 기초와 구조에서 영적으로 굳건해야 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살펴봄으로

써 이 상징이 얼마나 뜻이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반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찌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신 32 : 3-4)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나의 방패시요……나의 높은 망대시요”(삼하 22 : 2-3) 에녹은 주님이 “나는 메시아, 시온의 왕, 하늘의 반석”(모세 7 : 53)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지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 : 4)고 설명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니이 4 : 30, 35)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족장 야곱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창 49 : 24)라고 말했습니다. 말일의 계시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고로 나는 너희 가운데 있어 선포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교성 50 : 44)

이사야는 특히 주님을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사 28 : 16)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충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며 이 권속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고 설명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렇더라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시 118:22)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자신이 그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마 21:44)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

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1-12)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부딪히는 돌로 불리워집니다. 그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나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벧전 2:8) 니파이인 선지자 야콥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에, 그들이 그 위에 일으켜 세워 안전한 기초가 되게 할 반석을 배척할 것이나……바로 이 반석이 유대인들이 그 위에 이르켜 세울 수 있는 최후의 유일한 큰 반석이니”(야 4:15-16)

예수님만이 반석이 아니라 그의 복음도 반석, 곧 확고한 기초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얻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이 말씀의 의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밝혀졌습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라. 이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참으로 너희는 이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았나니, 계속하여 반석 위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문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교성 33:12-13) 또한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나의 복음이니라. 계시의 영이나 예언의 영을 부인하지 말라.”(교성 11:24-25) “보라, 나의 복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너희 앞에 있도다.”(교성 18:17)

충실한 제자는 흐르는 모래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반석 위에 자신의 생활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 제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눅 6:48)

참된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참된 제자도 그를 섬기는 데 있어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충실한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

읍니다.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뱃전 2:4-7)

한 개의 돌의 권세와 힘은 주님이 산에서 잘라 낸 돌 한 개가 굴러서 세상의 금, 은, 동, 철, 진흙을 부수리라는 다니엘의 선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상에 세우실 왕국인 그 돌이 인간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조직된 그 어떤 왕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단 2) \*



리 모두가 가계도를 아담까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까?

대답: 로버트 시 군더슨 1세, 교회 계보과

질문: 어떤 사람이 자기 조상의 가계도를 아담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가 가계도를 아담까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까?

하면서 입증할 수 있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계도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명을 받아 수년 동안 수백 건의 계보 가계도를 검토하였습니다.

나는 그 가계도의 각 연결 부분이 모두 동시대의 서류에서 나온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보았습니다. 내 견해로는 메호빙가 왕조(서기 450-서기 752년)시대 이전의 유럽의 관련 가계도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성경의 가계도 사이의 공백을 메꾸려고 시도한 가계도가운데서 내가 본 것은 모두 의심스러운 구전에 또한 최악의 경우는 순전한 조작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계도는 그 정보의 근원에 대하여 아

이 두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계보를 조사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아담까지의  
우리 가족 혈통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애매한 근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담까지 조상의 혈통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계보 탐구를 하는 참된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가계도를 아담까지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시도가 아마도 모든 죽은 자가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의 전반적인 목적에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서기 15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신전 사업을 하도록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현재 내가 맡은 책임입니다.

나는 이 기록의 90내지 95퍼센트는 이미 행해진 사업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서기 15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신전 사업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기간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아직 신전 사업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료의 처리 과정과 자료 출처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 기간의 계보를 찾는 회원들은 자기 앞에서 행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똑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끝없이 반

복해서 나오고 다른 수백만 명은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서기 1500년 이전의 기간을 찾으려는 대부분의 노력과 아담까지 가계도를 찾아서 편집하려고 기울인 모든 노력이 적어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낭비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좀더 가까운 우리의 조상들은 등한히 할 때가 많으며 심지어는 계보 탐구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먼저 계보과에 확인하고 또한 좀더 가까운 세대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서기 1500년 이전의 조사를 행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새로운 신전 사업을 하게 할 정보를 서기 1500년 이전의 시기에서 발견할 가능성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실제로는 영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아담까지의 우리의 혈통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의 상태로 볼 때 우리가 아담까지 가계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위험하게 바울의 훈계를 무시하는 것에 매우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딤후 1:4)

이 일의 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어떤 면에서든지 이 사업에 종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에 세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

# 봉사가 다르게 만든다

편집자 주: 이 기사 즉 "봉사가 다르게 만든다"는 오래 전에 작성된 것으로 마바라 비 스미스 자매와 두 보좌가 4월 연차 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해임되기 전부터 성도의 빛에 깨닫히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스미스 자매는 거의 10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메리안 알 모이어 자매는 1978년 11월부터 제1보좌로, 앤 에스 리스 자매는 1983년 10월부터 제2보좌로 봉사했다.

## 전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담

**편집자:**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오늘날의 시련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돕습니까?

**스미스 자매:** 상호부조회 조직은 여성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시키고 여성들이 좀더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도우며 지역 사회에서 자신 봉사를 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오늘날 평화롭고 기쁘게 세상을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리스 자매:** 상호부조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진정한 영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시련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과는 모든 자매들이 그들의 문화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관을 맺을 수 있는 복음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과는 원리와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여성들에게 모범으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편집자:**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즉 우리가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말일성도 자매들이 더 멀리 내다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의 책임을 살피게 해줍니

까?

**스미스 자매:** 첫째,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능을 발전시킬 때 따라 봉사하는 능력도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둘째로, 상호부조회는 우리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상호부조회 지침서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가난한 자와 병자와 불행한 자를 돌보고, 상가를 돌보"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지침서 2페이지 참조) 상호부조회는 세상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참여되어 있는 좀더 큰 안목을 제공하는 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이 기쁨과 평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편집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스미스 자매:**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특성 즉 욕심, 이기심, 증오심, 시기심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특성 즉 욕심, 이기심, 중요심,  
시기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세주의 생애에서 나타난 모범은 회생하는 마음, 사랑, 헌신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 그리스도같은 특성이 없으면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편집자 :** 우리가 봉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 살피야 할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스미스 자매 :**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명에 있어서 가족이 한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기 자신의 영역 즉 자기 가정의 어린 자녀, 성인 친구들, 가까운 친척 및 그들의 직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한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사랑하려는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제로 그 대상이 어린 아이이든 외로운 자매이든 또 그 누구이든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순화시켜 주는 사랑의 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우리의 사랑에 감사하는가 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성장합니다.

**보이어 자매 :** 모든 자매들이 어떤 상

황에 처해 있는 자기 가정에서 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본부 상호부조회 서기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자매님은 자기 조카딸과 조카딸의 갓난 아기와 만 3세가 된 사내 아이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축복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편집자 :** 남편을 여의었거나 이혼하여 주부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부조회는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보이어 자매 :** 우리는 자매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서라도 준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자매가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혼자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 몇 년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신용 보증 제도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금전의 예산을 세우는 방법, 간단한 집안 수리를 하는 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데 가사 모임이 도움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자녀와 함께 가정에 있는 기쁨을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매들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1보좌인 메리안 알 보이어 자매, 회장인 바버라 비스미스 자매, 제2보좌인 앤 스트리트 리스 자매

까? 그들이 상호부조회 계획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이어 자매:**가정에 한 사람뿐이거나 열 사람이 있거나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가정이 우아하고 질서 정연한 학문의 집이 되어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들이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혹 단 한 사람의 가족밖에 없을지라도 늘 혼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정은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올지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자매들이 서로 돕게 하는 데 있어서 가정 방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리스 자매:**저는 가정 방문이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여성은 누구나 방문 교사로서 봉사할 권리와 기회를 갖습니다. 방문 교사가 지명받은 가정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 주려고 노력할 때 그 자매는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다만 다른 여성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방문 교육은 그런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방문 교육은 또한 침례받고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반가이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가정에 민

사랑은 실제로 그 대상이  
어린 아이이든 외로운 자매이든  
또 그 누구이든  
절대 남비되지 않습니다.

감하기 때문에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필요 사항을 알아낼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미스 자매 :** 우리는 모든 자매가 자신이 가장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을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교사들이 담당하는 자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으며 또한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방문 교육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상호부조회와 기타 여러 모임에 참석하며 복음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편집자 :** 최근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스미스 자매 :** 예, 이전에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매년 방문 교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회수의 개인적인 구두상의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지침서에서 우리는 특정한 회수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의 상호부조회 회장이 모든 자매의 필요 사항을 알고 해결하도록 방문 교사가 어떻게 회장을 도울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자주 방문 교사와 접견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

하는 것은 회장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물론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방문 교사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방문 교육에 있어서 서면 보고 뿐 아니라 구두 보고의 가치를 인식하기 바랍니다.

**편집자 :** 상호부조회의 또 다른 면을 보기로 하죠. 우리는 일부 여성들이 교회밖의 여성에게서 긍정적으로 다른 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다른 점이 생깁니까?

**스미스 자매 :** 역시 우리가 바치는 봉사로 인하여 그렇게 다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스테이크를 방문했는데 그 스테이크의 자매들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기 애애하게 일하는 동안 그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인하여 훌륭한 자매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치는 그 순간 행복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에게 화평과 행복의 영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나 행복의 열쇠는 목적 의식과 성취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드시며 우리를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은사와 다른 잠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내부에 갖고 있습니다.

\*



# 범주를 초월하여 바라봄

젠 언더우드  
독신 생활 회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심을 증진시키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운 많은 것이 이미 희미하게 기억날 따름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라도 회상해 보라고 강요받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회상의 대답은 겨우 “한때 그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개념은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혀 엉뚱한 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반원들이 조사 기법에 있어서 좀더 나은 방식에 통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 교사가 간단한 규칙을 한 가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이 되었읍니다. 그는 “한 범주내에도 서로 다른 범주 사이만큼이나 다른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한 그룹 내의 두 구성원만큼이나 공통점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 25세가 넘은 독신 여성”이라고 개략적으로 정의내려지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 계획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개념은 나의 기본적인 희망과 목표에 있어서 결혼한 친구들과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설득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외모나 체격, 지능이나 타고난 언어, 교회 부름이나 결혼 상태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두 가지 기본적인 목표 즉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로 봉사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우리의 다른 모든 면은 이 두 가지 계명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마 22 : 37-40 참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부름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내 일생의 사업을 결혼할 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생활에 남편과 아이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독신 여성이므로 이런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취하는 방식은 결혼할 친구들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런 공동 목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독신 생활은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시련도 안겨 줍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나의 인식은 내가 집중해서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가끔 나의 처지가 좀 달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 낙담하지 않은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독신자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두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느껴 왔습니다. 가족이라는 구조내에서의 생활은 끝없이 증진되는 특성으로서 사랑의 은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생활은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고 순화시켜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족 생활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즉각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배가 고프은 아기는 피곤한 부모가 한 시간 더 자도록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성격상의 갈등은 방친구를 바꾸거나 혼자 사는 것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람있는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공감하고 타협하는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결혼한 나의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상당한 희생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도 비슷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기 쉽습니다. 내가 늘 접촉하는 사회 밖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나 배고픈 어린이와 혼자 사는 노인과 낙심하고 있는 온갖 연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제는 나 혼자만의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천 세계에 적용되는 주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한 나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인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생활에 따르는 힘든 요구가 없으므로 결혼한 친구들이 손길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과 어머니 없는 아이, 아버지 없는 아이에게 손길을 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독신자들이 부모가 서로 자녀에게 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풍요한 정서적인 보상 가운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은 아마 편리하고 손쉽게 얻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과 애정의 감미로운 선물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독신자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 지도도 없고 적절한 모범도 없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상 나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겸손하게 노력하고 있는 신앙과 사랑을 지닌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서 훌륭한 모범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헌신적인 추종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셨던 구세주의 모범으로부터 훨씬 더 큰 위안을 받습니다. 결국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일한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그의 사업을 계속하고 끝내기 위하여 필요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룩한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제공하는 종류의 안정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이런 허락을 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과 성취의 시간 뿐 아니라 혼란과 고통과 자신감을 상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혼자서 난관에 대처하는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달리 했을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심이 많은 배우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위안과 치유의 참된 근원을 향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나 자신이 개인적인 시련과 외로운 유혹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늘 끊임없는 자비롭고 관대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좀더 확고하고 믿음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수년 동안에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실질적인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

보람있는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공감하고 타협하는 꼭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 그분은 결코 성급하게 나의 어려운 선택을 대신하여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천천히 또한 고통스럽게 자신의 판단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분이 내가 허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회개의 원리를 더욱 감사합니다. 이 원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우리가 길고 불확실한 인생의 기간을 통하여 투쟁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는 영혼의 힘에 의하여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부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때 그런 것을 발전시켜 준 상황을 주님이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굳건하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좀 개인적인 비극 즉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순간 등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심을 증진시키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독신자로서 나의 인생에 매우 소중한 면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 “우리 가정 복음 교사의 전화……”

로버트 케이 맥킨토쉬

나는 가정 복음 교사가 자신이 맡은 가족을 위하여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얼마나 실제하는가 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대학에서의 학기가 끝나고 나는 여름 방학 동안 주택에 페인트를 칠하는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 연구원 야간 강좌를 맡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에 7명 가족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큰 차를 샀으며 이것은 우리가 늘 원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신학 연구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만 3세와 5세가 된 두 딸이 집으로 뛰어들어왔는데 팔이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기도 전에 밀가루 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그들의 팔에 하얗게 묻은 것이 뽕뽕 방울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차 안에 아직 따지도 않은 한 갈론의 기름 페인트와 또 편의상 그 옆에 커다란 페인트용 붓을 두고 온 것입니다. 우리 어린 딸들이 물때 그 깡통을 열고는 자동차 내부를 칠한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말입니다. 천정, 바닥, 의자 등……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서 있는 동안 딸 하나가 얼굴에 미소를 띄고는 “아빠, 자동차 참 이쁘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두 소녀를 안고는 욕실로 데려가서 욕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 와서 그들을 씻어 주게 하고 차를 손질하러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약간 짜증이 난 음성으로 “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쪽 편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맥킨토쉬 형제님, 가정 복음 교사인 월드 형



제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동안 형제님과 형제님 가족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끔끔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월드 형제님, 지금 막 우리 두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새 자동차의 내부를 몽땅 페인트로 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닦아 낼 테레빈유가 한 홑도 없습니다.”

그러자 가정 복음 교사가 대답했는데 그것은 오늘까지도 저에게는 하나의 영감입니다. “맥킨토쉬 형제님, 아마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약 30분 전에 백화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저에게 ‘테레빈유 갈통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 기쁨은 아직도 저의 차에 있

습니다. 제가 당장 그리 가서 페인트를 닦아 내는 것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약 20분 후에 우리는 그 어지럽게 칠해진 것을 완전히 닦아 내었으며 나는 제시간에 신학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하늘을 쳐다보며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염려하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관하여 영감을 구하는 가정 복음 교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

로버트 케이 맥킨토쉬 형제는 여섯 자녀의 아버지로서 유타주 센터빌 와드의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이다.

#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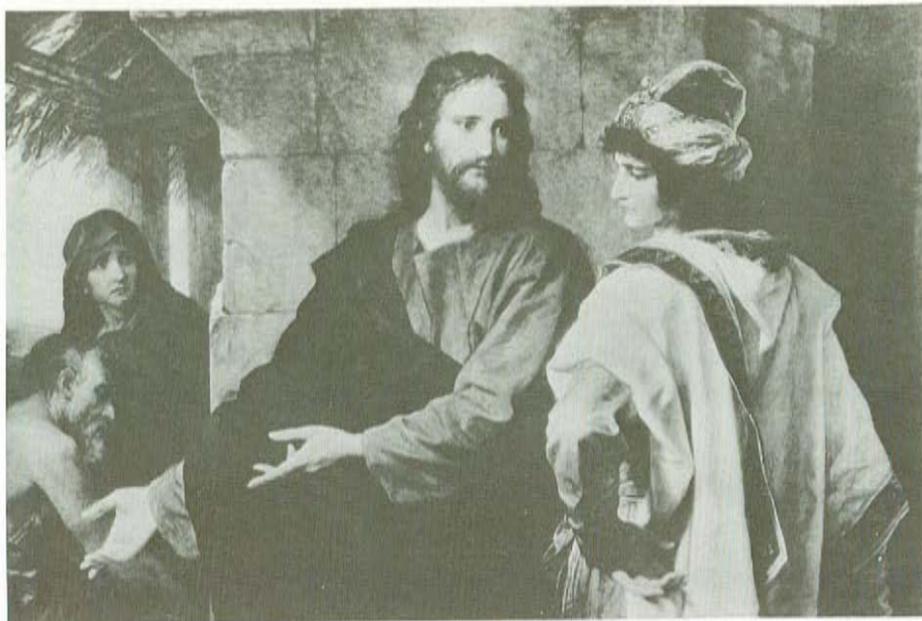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권고인 동시에 막중한 임무 부여의 의미가 되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 19:21)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 12:26)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으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일부 주님의 추종자에게는 그 부름이 좀더 구체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눅 6:12, 13)

이 택함받은 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실제로 주님이 성역을 베푸실 때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름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매우 가까이 알았으며 겸손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기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요 15:14, 15 참조)

이 열 두 사도는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신성과 그분의 문자 그대로의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마 19 : 21)

들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그분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구속주께서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 보고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눅 24 : 38, 39 참조)

이 사도들은 주님의 신성과 부활을 확실하게 알았으며 그 확실한 정도는 어떤 설명이나 논리로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험과 성령의 확인에 근거를 둔 이런 지식을 갖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그리스도) 증인이 되”(행 1 : 8)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도라는 말은 “신성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힘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

활의 증인이 되도록 “성임받았으며”(행 1 : 22 참조) 그 결과 그들은 나아가서 대담하고 권세있게 대속과 부활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구속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사건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간증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성신이 그들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엡 3 : 5) 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특별한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

:20)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사도와 예언자를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엡 4:12, 13) 따라서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단결과 신앙을 쌓기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도 맡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다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얻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실재하심과 그의 구속을 압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교성 20:2)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강한 간증을 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22, 23)

경험과 성령의 확인을 바탕으로 전한 예언자의 간증은 전세계에 선포되었으며 성신이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수백만의 사람에게 이 간증의 참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우리 시대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

한 끊어지지 않는 사슬 고리의 연결로 인하여 사도의 부름이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보장된 것입니다.

나는 성임받은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증한 메시아입니다. 오랜 세기 동안 규정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에게 오실 것을 기도해 왔으므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므로써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 유혹에 굴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침례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권능을 지닌 분으로서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절름발이와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시므로써 죄를 용서해 줄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물이 단단한 땅인 것처럼 그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악한 통치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시고 번민하는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겹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므로써 육신을 입고 들어올 모든 영을 위한 대속물로서 죄없는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제3일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침례 요한의 손으로 아론 선권을 받는 것을 묘사한 조각

그리스도의 높으신 회생은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 생활에서 충분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따금씩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육신의 인간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또한 성신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의 성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간증합니다. 나는 마치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압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나의 간증이 참됨을 확인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가 사신 때로부터 거의 2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특성……그의 친절하심, 관대하심, 자비로우심, 사랑을 경배해 왔습니다. 고대의 한 저자는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큰 바다로서 그의 미소짓는 수면은 우리 소자의 발에 상쾌한 잔물결로 부서지지만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곳은 가장 현명한 자도 경탄에 떨고 사랑의 감동을 받으며 응시하게 될 것이다.”(오거스틴, 신앙고백, xii 140)

그분의 가르침과 특성이 인간 가족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 왔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의 존경과 예배를 받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되신 일의 부산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특성과 율리를 경배해 오면서도 그들의 구속주의 신성은 부인해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권고는 특별한 증인으로 성인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름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명령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두 가지 견해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끔 다음의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여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그 대답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정말로 많은 증인들이 똑같은 권세에 의하여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저도 겸손하게 감사드리기는 가운데 그 증인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그 질

문에 혹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대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올바르게 대답하고 영원히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 대답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으신 희생은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 생활에서 충분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은 부적절하거나 비실질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그를 지켜보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의 사상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를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그리스도의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이 거짓인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모범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은 잘못된 인도되는 것이며 그 생의 높은 잠재적인 운명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서 배우고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던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삼 27:20, 21)

우리는 누구나 경건과 주님의 택하신 종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써 말씀으로 신앙을 행사하고 그리하여 우리 생활에서 깨끗하고 성결케 하는 성신의 권세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상으로 주신 은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일 뿐 아니라 기회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9-11)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을 때.....

바이얼릿 엠 테이트 자매가 리 에스 레이니에게 한 이야기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50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알콜 중독자였으며 우리의 가정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우리는 심하게 또한 고통스럽게 다루고 싸웠습니다.

우리의 언사는 자주 가혹하고 책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에는 사랑스러운 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남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 나의 견해로는 틀렸으며 나는 그의 음주에 대하여 그에게 자극과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나의 모든 불평을 다 듣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 그가 말을 막고는 “테이트 자매님, 남편에 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까? 그는 언제나 자매님 가족에게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채를 갚는 데 있어서 지극히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가 행하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 뚝에게 그의 힘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자신의 행복밖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

이외에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꿈꾸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였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나를 알콜 중독자의 가족과 친구의 모임에 참석하게 하려고 수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알콜 중독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내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자존심만 강하고 신앙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기적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딸 매들린이 대신해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딸은 용기를 얻고 돌아 왔으므로 나는 거기에 약간의 희망의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음 모임에 참석하여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열리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최근에 발견한 나의 희망이 장애

에 부딪쳤습니다. 당시에 나의 팔다리는 이미 관절염으로 절름거렸으며 걷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건물에는 내부에 층계가 있었는데 붙잡을 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까? 나의 모든 이기적인 악감정이 걸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말해 왔던 모든 불친절하고 비판적인 말들이 다시 나의 입술로 나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표준에 대하여 매우 독선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도울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지도자가 나에게 20분을 주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가족이 고통받았던 그 긴 세월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남편이 11명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비난은 그에게로 가고 모든 문제는 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매주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상처받고 화났기 때문에 그 비난 가운데 일부는 나의 탓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불행에 대하여 그가 책임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 지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테이트 부인, 한 가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음주에 관하여 어떤 것을 하려고 여기에 와 계신 것이 아닙니

다. 부인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 가 술을 끊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그것을 하고 싶어해야 합니다. 부인께서는 부인 자신의 건전한 정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기에 와 계십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나의 태도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복음대로 생활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술을 끊을 수 있는 어떤 기적을 발견할 희망을 갖고 그 모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남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싸움과 논쟁은 남편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잘못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50년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내려왔습니다. 나는 길고 긴 50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의 논쟁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의 모범을 전혀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등불처럼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나도 돌아서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배우는 데 50년이 걸렸으니, 마침내 주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5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50년 이상이나 교회 회원으로 살았지만 마침내 복음이 가르치는 참된 사랑의 원리로 개종하게 된 것은 그날 밤 그 모임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깨달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처럼 나도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엘 5:14 참조) 나의 두려움과 이기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생각하는 동안 남편에 대하여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가 나와 자녀를 평화롭게 버려 두었으면 하고 바랐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를 사랑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행복을 다시 가져 올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50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행복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이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비결은 나의 잘못된 독선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회개하고 나의 생활을 완전하게 해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저주하거나 벌하는 대신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변화에 대하여 심각했으며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곧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남편은 욕설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마주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였습니다. 내가 자신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상냥한 설득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쟁이 사라지자 주

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을의 작은 주점에 가지만 소오다수만 마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보.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들어오실 때 소리치지 마세요. 더 이상 싸움을 걸지 않겠어요. 당신은 당신이 살아야 할 인생이 있어요. 제가 나빴어요. 제가 당신을 해치기 위하여 말하거나 행한 모든 것에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단지 보상에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 전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완전에는 근처도 못 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복음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 모든 세월 동안 얼마나 잘못하였는지 깨닫는 데는 거의 제난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이해의 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변화하였을 때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20)

\*  
열 한 자녀의 어머니인 **바이얼릿 엠 테이트**는 오더번 델라웨어 지부에 살고 있다. 현재 그 중 아홉 자녀가 생존해 있다.

# 15세

## 나의 축복의 해

브렌다 마티네조

나는 1967년을 내 인생의 변화의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게 자란 해로 기억합니다. 나는 만15세였으며 1월에 우리는 어머니가 여섯번째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이 났으며 어머니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에게 유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으며 유산을 막기 위하여 어머니에게 매우 독한 약이 투약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구가 될 가능성이 몹시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어머니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무거운 정신적 부담으로 우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교회에서 비활동이였으며 자신을 뒷받침해 줄 간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사기가 떨어졌고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가정에서의 이런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장녀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무언가 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훈계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기를 갖게 해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가 늘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귀여워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우리 어머니가 아기의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해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께 위에 따뜻한 위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는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놀라시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방금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내보내신 후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께 한 마디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나자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나는 몸을 숙여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나중

에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고는 내가 어머니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예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는 모습을 하고는 “또 뭐가 있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방에 들어올 때 나의 얼굴에 불이 빛나는 것같이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머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큰 소망을 알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원을 허락받을 것이며 그 딸 아기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주님은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5월 18일에 새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주일 후에 어머니는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심한 출혈을 시작하였으며 다시 2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15세 소녀들처럼 연애, 결혼, 아기 등에 관하여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꿈꾸었던 것 중에서 당시에 내가 직면했던 것에 대하여 준비시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준비해 드려야 할 아버지가 계셨을 뿐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네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해야 할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생후 2주일밖에 안된 아기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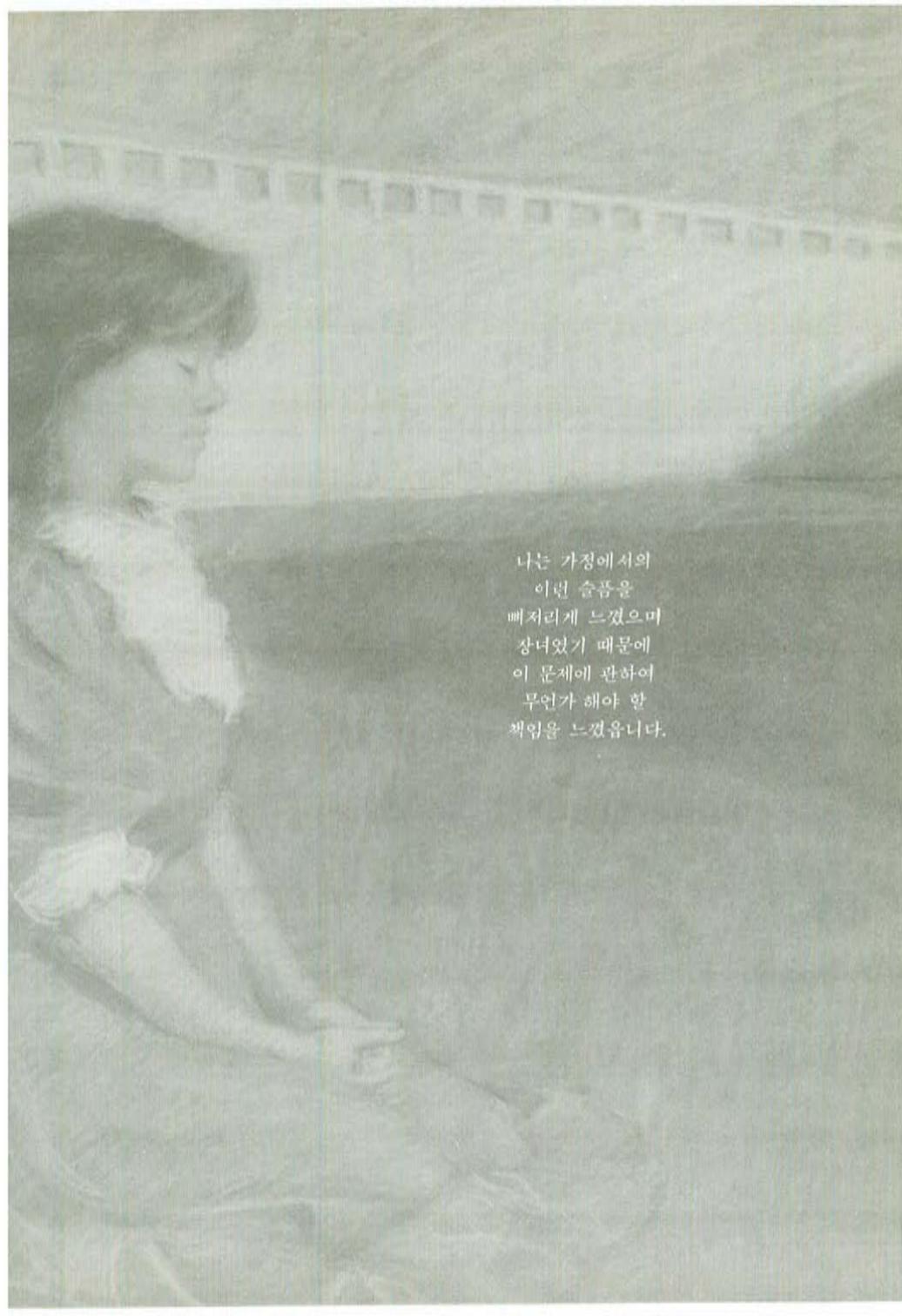
때때로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기와 나 사이에는 매우 밀착된 유대 관계

가 발전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기가 마치 내 딸인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와드의 몇몇 자매들이 와서 며칠 동안 아기를 메러가서 돌봐 주어 돕겠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린 아이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우리 아기를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러한 행동을 해명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그 부인들을 모두 모시고 당시에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또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매우 뚱뚱해진 딸 아기를 보셨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나는 아기가 울면 무조건 배가 고프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이제는 만 16세가 되었으며 늘 우리 가족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만 7세가 되었을 때 10원씩 모은 510원을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술과 담배에 대한 욕망을 고칠 수 있도록 병원에 갈 돈을 지불하고 싶은 소망에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신전 인봉 6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무릎을 꿇고 인봉 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

한 아기의 어머니인 브렌다 마티네즈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어머니 교육 교사로 일하고 있다.

A monochromatic photograph of a woman in profile, looking down. She is wearing a dark, long-sleeved dress with a white ruffled collar and cuffs. Her hands are clasped in her lap. In the background, a large, light-colored building with a series of windows is visible against a hazy sky.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somber.

나는 가정에서의  
이런 슬픔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상녀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무언가 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 그리스도 같은 봉사는 우리의 편의 대로가 아니라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최근에 선교부장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모임을 했으며 모임을 끝내고 비행기 편으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약 17시간이나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 입고 침대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나는 잠시 이야기를 했으며 그 순간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어린 학교 시절부터 알았던 한 남자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본 형제, 내 딸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여러 번 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이나 숨을 멈추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지만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딸이 병자 축복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오셔서 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온 정신이 피로했습니다. 나는 휴식을 취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아내도 내가 한동안 집에서 쉬면서 심

신을 풀기를 기꺼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 형제님, 30분 이내에 거기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대학 병원에서 약 반 시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함께 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훌륭한 여성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옷을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나는 46년 이상이나 알고 있는 이 훌륭한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을 발견하였으며 그 가족과 함께 큰 신앙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 형제와 나는 중환자실로 가서 그의 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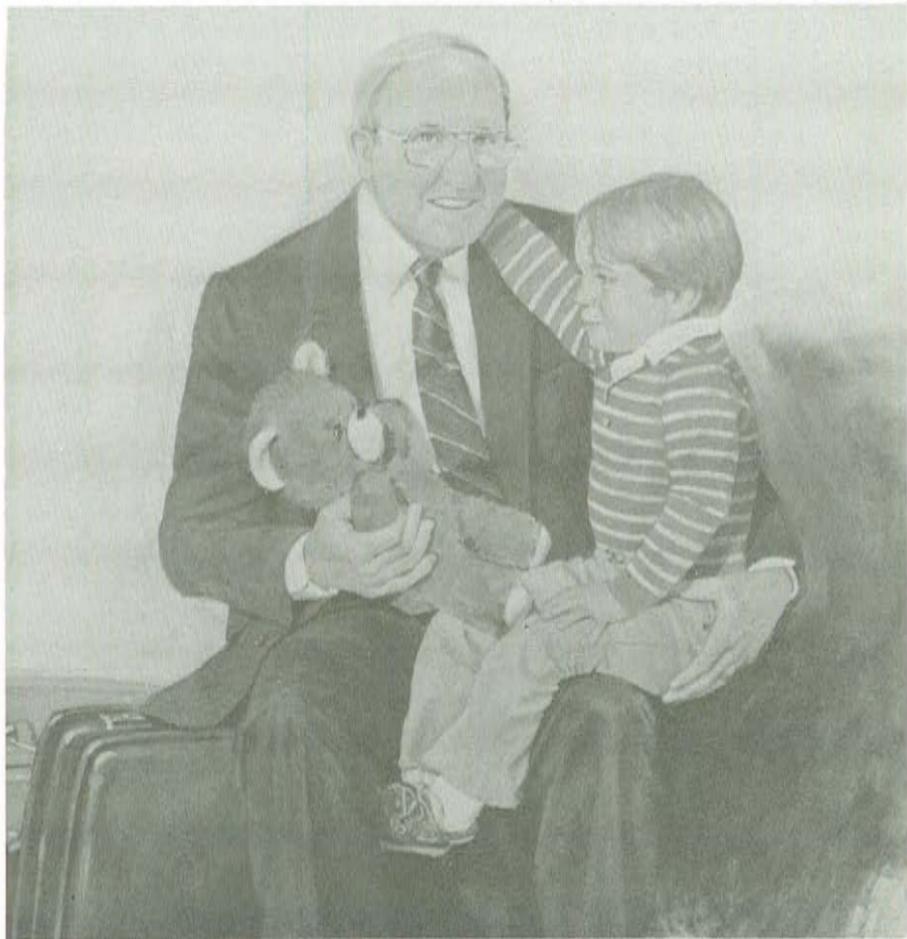
우리는 주님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하고 평화로운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녀가 우리의 축복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의 훌륭한 아내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더 이상 피로하거나 지치

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기에 합당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쓰는 시간에도 조 형제의 딸은 살아 있습니다. 그 딸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봉사 활동을 할 기회는 항상 편리한 시간에 오지는 않습니다. 약 2~3년 전에 나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스메이크를 제조직하였습니다.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떤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완숙한 노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페더스토운 장로님, 오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십니까?” 나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4시 비행기로 가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운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지금 막 끝낸 그 바쁜 일정을 생각해 보았고 나의 육신은 약간의 휴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친척에게 어떤 것을 전해 주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꼭 그래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집을 집칸으로 부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운반해 주기 바란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화물로 처리해야 하는가를 잠시 생각 보았습니다. 나는 그 품목 때문에 수하물 인도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불과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늘 그렇듯이 영이 모든 헛된 변명을 없애 버렸으며 봉사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보여야 할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자 필립이 몇 주 동안 여기에 와서 저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만 2살 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거기에서 그 할머니가 나를 필립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봉투가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실 때까지는 이것을 열어 보는 것을 참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필립과 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할머니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친애하는 페더스토운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필립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다 주고, 또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

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장로님을 만나기 위하여 공항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어머니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로님이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감히 편지를 여시게 하지 못한 것은 장로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청을 하나 더 들어주시도록 부탁드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립의 형 키키가 유타 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작을 합니다. 의사들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했으나 아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병원에 들리셔서 축복을 주실 시간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도 우리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항의 긴 터미널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필립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커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수하물 인도소를 거쳐 도로로 나섰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살면서 좀 이상한 일을 몇 번 했지만 이렇게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만 2살 반이 된 소년을 데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필립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차를 몰고 와서 우리 옆에 섰을 때, 그 어머니는 공항으로 오는 교통이 복잡해서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상냥한 어머니는 매우 친절하였으며 기뻐하는 필립과 그의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유타 대학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약 여섯 명의 어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방에

서 나갔습니다. 나는 그 귀여운 여섯 어린이와 함께 혼자서 그 병실에 있었읍니다.

나는 어디가 릭키의 침대인지 알아낸 다음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내 이름은 본 제이 페더스토운이다. 내가 방금 누구와 헤어져서 오는지 아니?” 그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나는 “오늘 로스엔젤레스에서 왔는데 네 동생 필립을 집으로 데려왔다.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 릭키는 만 4살 가량밖에 안되었지만 눈에서 눈물을 흘렸읍니다. 그는 동생을 보고 싶어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릭키야,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친구이며 그분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킴볼 대관장님은 예언자이시지. 네 할머니께서 나에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단다. 어떤 사람이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는 “예”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릭키야, 너는 예수님을 믿니?”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였읍니다. “너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이 너를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는 “예”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네가 병이 낫도록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니?”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읍니다.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었읍니다. 이 작은 소아과 병동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겼읍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놀이와 울음을 그치고 귀기울여 듣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축복을 끝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 이름이 새겨진 아름답게 광을 낸

물을 꺼냈읍니다. 그것은 전에 누가 나에게 준 것이었읍니다. 릭키의 어머니가 와서 내가 왔었다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릭키에게 주었읍니다.

2년 후에 킹스포트 테네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는데 대회가 끝난 후 한 훌륭한 어머니가 다가왔읍니다. 그 어머니는 필립을 뵈보고 릭키를 축복해 주도록 부탁하신 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는 “장로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에 대하여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못들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 위대한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장로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이후로 릭키는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었읍니다.

필립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나 유타 대학 메디칼 센터에 가는 것이 저에게 편리한 일은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제셨다면 하셨을 일이었읍니다. 우리의 봉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친한 친구로부터 그의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나는 조의를 표하고 장례식이 언제냐고 물었읍니다. 그가 날짜를 이야기하였을 때 나는 내 일정표를 보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훌륭한 아버님에게 명예를 돌리고 어머님께 사랑과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명을 받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말씀을 부탁드리기에는 너무 일정이 바쁘시리라 생각했읍니다만 아버님께서 장로님에게 시간이 있으면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정표에 있는 것이 어

떻게 모두 순식간에 조정될 수 있었는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어머님께 제가 가겠다고 말씀드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장례식이 끝나고 편지를 한 통 받았읍니다. 그 편지의 문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제 남편은 이 지상 생활에서 주어진 시간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하루는 우리가 장례식 준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장례식에서 누가 말씀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케더스토운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바쁘신 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오.’ 그리고 그는 다른 선한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였읍니다. 장로님이 말씀하려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읍니다. 저는 장로님의 그 많은 의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봉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했는지를 알았읍니다. 그 어머니는 “주님이 어찌면 저에게 그렇게까지 선하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씀으로 끝냈었읍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그 부인에게 주님께 대한 이렇게 큰 사랑이 가득 차게 해준 것은 본 제이 케더스토운 장로가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남편의 소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불편할 때에 갖게 될 봉사의 기회를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에게 바치는 봉사의 기회는 대부분이 여러분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

오. 학교 생활, 구혼, 직업 훈련한 중간에 18개월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 학교 성적을 유지하고 사교 생활을 중족시켜야 할 때 와드에서 봉사하라는 부름.

교회에서 말씀하라는 부탁.

가정 복음 교육 방문.

아침 일찍 갖는 신학연구원 중등부 모임. 편리한 시간에 하지 않고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스테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병든 친구에게 병문안을 가는 일.

고속 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기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 사람. 대개 그 시간은 멈추어 서기에 편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이 하루 종일 할 일이 꽉 차 있는데 미망인이나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눈을 치워 주거나 문앞을 열어 주는 일.

우리 모두에게 일생 동안에 올 수 있지만 대부분 부적절한 시기에 오는 기회를 얼마든지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고 결정내릴 수도 있으나 대개 그것은 변명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일이 되게 하려면 바쁜 사람에게 시켜라.”고 한 말은 지금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태어났읍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서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자신의 육신이 약할 때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우리가 편리하지 않을 때 그런 선하고 친절한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면 그 축복은 열 배나 됩니다. \*

# 나의 개종을 도운 나의 일지

스텔라 마리 맥카널리

나는 교회의 새 회원이며 나의 일지가 내가 마침내 어려운 침례의 단계를 취하게 해준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정말로 압니다.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나에게서 몹시 어려웠습니다.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100퍼센트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조사합니다.

나는 캐나다의 퀘벡시에 있을 때 불어 학습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나는 2명의 아름다운 말일성도 자매와 함께 어떤 불어를 쓰는 집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활동적인 천주교인이었고 늘 말일성도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 온 터여서 당시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몹시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가 양육된 방식에 따라 모든 상황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행하였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소녀는 나의 내부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되고 그 전에 믿어 온 것과 아무리 어긋난다 하더라도 모두 적어 두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첫 토론을 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타쳤는지 모르겠다. 선교사들이 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18년이라는 생애 동안에 믿은 것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자신이 그런 것을 믿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이 말한 것에 관하여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온통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때로는 등줄기에 전류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 주님, 저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도와 주세요!

주님은 정말로 도와 주셨으며 우리가 토론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는 것을 배척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의 참됨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런 내부의 느낌을 계속해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에게 내가 침례받으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실망하여 몹시 슬프게 울고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슬프고 낙담했다. 나는 내 결정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해 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모두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침례받고 싶다. 나는 침례받을 때까지는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 단계를 취할 때까지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쓸 때 나는 진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나에게 영감을 주고 계셨다고 느낍니다. 정말로 침례받고 싶었지만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은 말일성도들이 억지로 나를 세례시켰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개종 의지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일은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말일성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으며 간증이 죽는 대로 버려 두었습니다. 내 인생의 한 지점에서 나는 말일성도와는 아무런 연관을 맺지 않기 원하였으며 더 이상 그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부의 그 작고 교묘한 음성이 일지를 쓰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공허하게 느끼며 불완전하게 느끼며 무언가가 빠져 있어 허전하다. 왜 나는 무언가 꼭 붙잡을 어떤 것을 찾고 있다고 느끼나? 나는 길을 잃었다. 나에게서는 정말로 인도가 필요하다. 내 간증이 흐트러졌다. 나는 천주교도로서의 믿음을 고수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이 비록 완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책에 있는 친구가 내 형편이 어떤지 알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내 느낌을 감추려 했으나 그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으며 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맺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방어벽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증이 되살아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매우 사랑하며 내가 올바른 일을 할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좀더 오래 이야기하였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일지를 다시 펴서 내가 적어 놓은 것을 읽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지를 펴고 내가 써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나는 기도하라는 매우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읽는 동안 그 감미롭고 재확인해주는 성령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로 믿고 싶어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교회에 갔습니다. 나는 매우 두려웠으나 즉시 그 와드의 일부 소녀들이 내가 새로 왔다는 것을 알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토론한 다음에 마침내 침례받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나를 도와 준 것은 나의 일지였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이런 것을 느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쓰지 않았을거야." 나는 믿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서 당시엔 느꼈던 것을 적



도록 권고하신다는 것을 안았습니다. 나의 일지가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윤리와 또한 우리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화평과 힘을 수복받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말전과 성장을 추방할 수 있으며 나의 대무에서 나오는 그 작은 음성을 듣기만 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생애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며 내가 의심할 때는 그 참됨을 재확인해 주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열차적인 끈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



# 제드와 강

델마 제이 해리슨

석유 등잔불이 깜박거렸으며 세리단 부인은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보려고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찬장에 있는 기름통에는 이 석유 등을 한 번 더 채울 등유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불꽃이 안정되자 세리단 부인은 물품을 점검하는 일을 계속했다. 큰 설탕 그릇이 비어 있었으며 옥수수 가루도 다 떨어졌고 통에는 빵 한 송을 구울 밀가루밖에 없었다. 세리단 부인은 밀가루 통의 뚜껑을 다시 덮으면서 길게 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만 열 살이 넘었으며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제드는 왜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오늘 오후에 그는 창고로부터 마지막 당근과 감자를 가져 왔던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등잔의 심지를 점검 더 낮추어서 불을 끄시는 것을 보았다.

제드는 어머니가 침대에 들어가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창문 커튼의 낮은 가장자리 밑으로 방 안에 비쳐 들어오는 창백한 달빛에 의하여 어머니가 식탁에 엎드려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가 울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우시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 울음 소리는 크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으며 아버지를 웃기고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우스운 이야기를 했다.

제드는 어머니가 우실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시기에는 너무 아팠고 의사가 필요했으며 월동용 식품은 다 없어졌다. 그들이 배고픈 인디언 가족에게 밀가루, 설탕, 베이컨, 감자를 잔뜩 가져다 줄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말과 마차를 묶어서 좀더 물자를 얻기 위하여 하루 이틀 동안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병에 걸렸으며 아버지는 매일 하루 이틀 이내에 물자를 가지러 가기에 충분하게 나아지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제드는 두 동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 나와서 방을 건너 다정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



을 었었다. 그는 격려하듯이 “울지 마세요, 어머니. 잘될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해낼거예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오, 제드야”라고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깨어 있는 줄 몰랐구나. 아마 너하고 나하고 물품을 사러 가게까지 마차를 몰고 갈 수 있을거야. 내가 고삐를 쥐고 네가 마차의 여러 마리 말 앞에서 베스를 타고 강을 건너 이끌고 갈 수 있겠니?”

제드는 마음속으로는 겁이 났지만 용감하게 “그럼요, 할 수 있지요!”라고 대답했다. 여름에 강물이 별로 많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가 베스를 타시고 어머니가 여러 마리의 말 고삐를 잡고 갈 때도 무서웠다. 강은 넓고 물살이 빨랐으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좋아”라고 말씀하셨다. “널 의지할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는 하루만에 거기에 갔다 와야돼.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출발한다. 자, 이제 우리도 좀 자야겠다.”

어머니는 요람에서 자고 있는 어린 레이첼의 이불을 좀더 포근하게 덮어 주시고는 침대쪽으로 들어갔다.

제드도 역시 조용히 방으로 건너가 잠든 동생의 곁에 있는 잠자리로 들어갔다.

제드는 다음날이 길고 피로한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잘 수가 없었다. 그는 강물이 튀기는 것과 휘감기는 소용돌이와 강 밑의 빠른 급류를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베스를 끌고 다른 말들을 강 저편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굳세어야 했던가를 기억하였다. 제드는 다리에 물이 튀기면 얼마나 춥고 얼어붙는 것 같을까 하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였다.

그러자 제드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왜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용기를 간구하지 않는가?

제드는 다시 한 번 따뜻한 침대에서 빠져 나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추운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베스를 다룰 수 있고 자신과 어머니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여행하고 다시 집에 오며 자신과 어머니가 가고 없는 동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이 보호받도록 간구하였다. 그는 조용한 화평의 느낌을 갖고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가서 잠들었다.

어머니가 제드를 깨웠을 때는 아직 어두웠다. 그는 추워서 떨면서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밖에 나가서 말을 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치며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제드는 다리를 감쌀 곱 가죽 옷과 어깨에 두를 누비 이불과 초라한 점심 식사용 빵과 마른 과일을 모았다.

그들이 강을 건널 지점에 왔을 때는 오전 중반이었다. 그 강을 다시 보고 성난 물결과 물뿜기는 소리를 들으며 제드는

다시 온통 겁에 질렸다.

어머니가 귀여운 듯이 제드를 보셨다. 어머니는 그 일이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달리 물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건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으셨다.

“그럼요”라고 대답하면서 제드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물림없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드가 모래 강둑에 서 있는 동안 강물의 소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되었다. 그의 심장이 무섭게 쿵쿵거리기 시작했으며 베스의 등으로 기어오르는 데 힘이 들었다.

그는 나는 못해라고 생각했다. 해낼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용기가 약해지는 것 같았으나 어젯 밤 기도할 때 왔던 그 막스하고 화평스런 느낌을 기억하였다. 그래서 강의 가장자리에서 베스의 등에 앉아 그는 다시 기도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시 그 무서운 느낌이 제드를 떠났으며 심장이 쿵쿵거리리는 것이 멈추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성난 야수처럼 소리내지 않았다. 말이 강으로 들어서자 마차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 주고 인도하고 그가 말하고 행할 것을 알려 주시는 것 같았다. 가끔 강물이 그의 발과 다리에 튀겼으나 제드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제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마차가 강의 반대편 강변의 모래로 끌려 올라가고 있었다.

제드가 다시 마차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자 “잘했다!”라고 어머니가 소리치셨다. 어머니가 그의 발을 곰 가죽 옷으로 감싸 주고 누비 이불로 몸을 감싸 주셨다. “거의 네 아버지와 똑같이 해냈어, 똑같이 말이야!”

곧 그들은 십자로에 있는 가게 앞에 마차를 대었다. 가게 주인인 켈리한씨가 문에 나왔다. 그는 “세리단 가족이 아닙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여러분 중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강물이 험한 것으로 보아 봄 늦게까지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못 만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때 세리단씨는 어디에 계시지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설명하자 켈리한씨는 의사에 게 제드의 아버지께 관하여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는 제드의 등을 두들겨 주며 “너는 참 훌륭한 아이야, 제드. 너 같은 소년이라면 여섯 명씩 있어도 상관없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저도 그래요”라고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다. “저 애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친절한 켈리한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들어오세요. 필요한 물품을 고르시다. 편찮으신 남편과 어린이들에게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실 겁니다.”

마침내 마차에 밀가루, 설탕, 콩, 배이전, 말린 자두, 옥수수 가루, 감자, 당근, 사과, 등유, 아버지 약품, 과자 한 꾸대를 싣고 나서 세리단 일가는 집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마차에 훌륭한 식품과 기타 필수품을 가득 실었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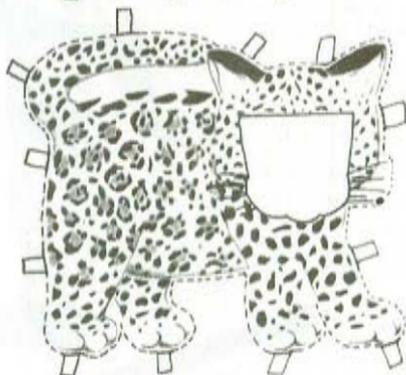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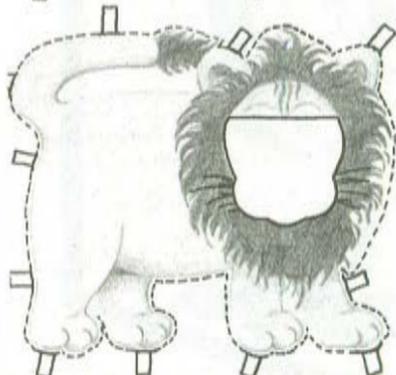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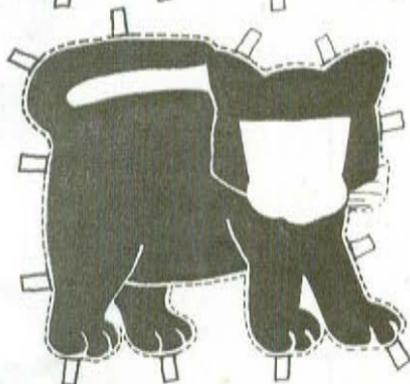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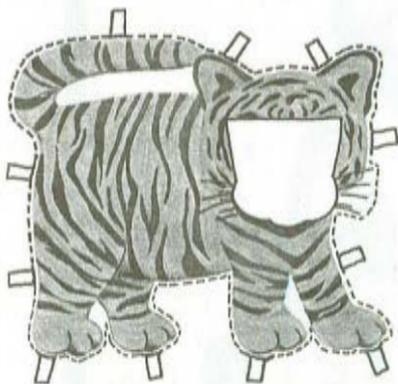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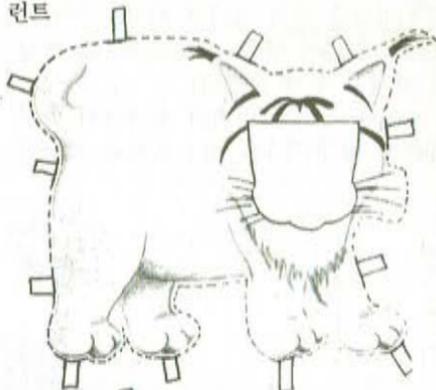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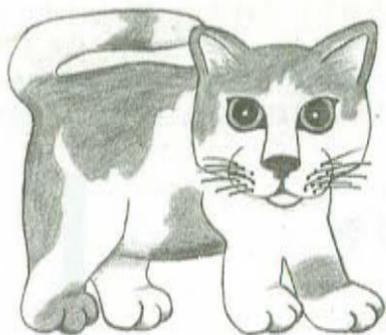
곧 어머니가 다시 강을 건너는 곳에 마차를 세우셨다. 잠시 동안 어머니와 제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것은 초조한 기수의 재촉을 받은 경마처럼 무섭게 내달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제드가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그가 베스의 등에 올라가자 몸이 떨리고 등뼈에 찬 바람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다.

그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 강을 한 번 건너었으며 이제 다시 건너려는 것이다. 제드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보였다. \*

# 고양이 종이 인형

타미 런트



# 좋은 모범이 되자

옛 날에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을 적의 검이나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 갑주(옷)을 입고 검과 방패를 들고 나갔다.

오늘날 우리는 악과의 전쟁에서 다른 종류의 갑주(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한다. (엢 6:11-17 참조) 이런 갑주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혹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기게 해준다. 우리가 영적인 힘의 갑옷을 입으면 참된 화명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지시 사항

1. 두 방패를 오려 낸다. 방패 "가"를 방패 "나" 위에 놓고 왼쪽 끝을 풀로 함께 붙인다.

2. 방패 "가"를 점선에 따라 자르고 방패 "나"가 나타나도록 한 번에 한 부분씩 접어 올려서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으

로 만들어져 있는지 찾아 낸다.

3. 방패 "나"에 있는 성구를 찾아보고 거기에 열거한 각 사람이 어떻게 좋은 모범이 되었는지 알아낸다.

4. 자신이 더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5. 가정의 밤 시간에 가족과 함께 이 활동을 한다. \*

방패 "나"

## 하나님의 갑주

(영적인 힘)

깨끗한 생각  
의로운 원리  
(사드락 - 다니엘 1장)

기도함  
정직  
공정  
(에녹 - 모세 6~7장)

진리  
복음  
(바울 - 롬 1~2장)

준비 -  
길 위에 발을 둠  
(니파이 - 니일 11~12장)



구원

의

신앙  
하나님을 믿음  
(다윗 - 삼상 17장)

이 장로가 회장이 되고, 로버트 이 웰즈 장로와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보좌가 된다.

아시아-일본, 필리핀, 한국, 대만, 홍콩, 동남 아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가 회장이 되고,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와 로버트 이 하버트슨 장로가 보좌가 된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회장단의 명단과 그들이 담당할 지역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행정 절차는 계속해서 평가되고 합당하게 수정되어 교회가 계속 성장해감에 따라 교회의 회원들 개개인의 필요 사항이 더욱 충족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개개인이 의식을 받도록 준비시켜 온전케 하며,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대리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하라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을 추구하는 행정상의 절차에 융통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지역 회장단의 임명은 교회 행정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로이 체제를 갖춘 조직은 행정적인 면에 힘을 더해 주고, 성장에 따르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지를 모으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른 회장단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역시 임기가 주어지게 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은 여러 지역의 집행 관리자로 지명받아 일해 왔는데, 때로는 다른 국가에 상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해 왔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지역 의제를 받는 모습



1984년 후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서 스테이크 센터(노랑진 와드)에서 이 호남 장로의 감리하에 열렸다. 토요일 신권회 모임은 강서 스테이크와 합동으로 가졌는데 최 동헌 부장(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이 이 모임에서 주로 훈련을 받았다.

오후 7시부터 410명이 모인 가운데 성도들의 자립심과 봉사를 주제로 이 호남 지역 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17일 일반총회에서는 2살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한국에 선교사업을 나온 김 미자 자매 선교사가, 축복사의 축복을 굳게 확신하고서 24년만에 쌍둥이 언니와 아버지를 찾게된 간증을 전함으로써 많은 회원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참석 인원은 955명이었다. \*